

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상정된 안건

-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 1
-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 1

(10시05분 개의)

○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교육부 등 소관 기관 담당자가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채권이 25년도에 최대 2조 5000억 원 이내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 원리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2조 5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소요되는 이자는 표면금리를 3.57%로 하고 5년 만기 이표채 발행을 가정했을 때 44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 보증동의안은 총 2조 9463억 원 규모의 보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조 5000억 원의 산출 근거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에 예상되는 지출액, 즉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에 소요되는 2조 4781억 원과 해당 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채권의 신규 채권 차환분 1조 6480억 원을 기준 학자금대출분 원리금 회수 1조 6793억 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2조 4468억 원을 채권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입니다.

여유분을 감안할 때 2조 5000억 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긴 한데……

○**소위원장 정일영** 말씀하세요.

○**박홍근 위원** 공부가 안 돼 가지고요.

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주는 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장학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쭉 좀 더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국가장학금은 저희가 이번에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9분위까지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건 ICL이라고 해서 장학재단에서 대여해 주는 장학금인데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나와 있으니까 이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희가 그래도 좀 알고 보증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채권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거기 앉으셔서 성명, 직위,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입니다.

말씀하신 국가장학금 관련해서는 현재 약 5조 7000억 규모로 2025년 정부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5900억 정도 증액된 규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9분위로 확대해서, 대학생 총 200만 명 중에서 현재 100만 명이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150만 명으로 증액하는 게 가장 큰 증액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가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등록금, 즉 학비 자체를 감면해 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등록금 자체가 감면되는 건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가 좀 대출을 해 줘서 저리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안건은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자금대출이 있는 건데 이 대출과 관련된 규모가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자료 보시면 2조 정도 규모로 돼 있습니다. 2조 500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이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출 상환의 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규모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다 합쳐서 한 2조 50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리고 이차보전 예산도 한 250억 반영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인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출받아 가서 회수하는 그 한도가 있습니까? 취업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분납해서 갑니까? 어떻게……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취업을 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연간 소득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제하고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본인이 받은 소득에서 대출한 금액을 제하고 그렇게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납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면 보통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까, 이자 부분은?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지금 현재로는 매년 한 3%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1.7% 정도 수준으로 약 3년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대출이자 부담률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거는 대학원까지 하나요, 대학까지만 해 주나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학부생 기준입니다만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대출 포함해서 일정 소득구간 이하인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에서도 계속 취업할 때까지 또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것을 좀 연기해 주자 그다음에 이자를 면하게 해 주자 이 주장은 계속해 왔던 것이 반영된 구조다 이거지요, 지금 상황이?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있고 이건 학자금대출이고, 두 가지 종류라는 거지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얼마 전에 어디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대학생들은 지원해 주는 게 엄청 많고 고졸 청년들은 없다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1.7%로 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논의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자료 9쪽입니다.

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합니다. 공급망 안정화법은 23년 12월에 제정돼서 24년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증동의안은 24년 2월 첫 번째 보증동의안이 의결된 후 두 번째 동의안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경제안보품목의 확보·도입·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및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수출입은행이 25년도에 원화 기준 10조 원 이내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 원리금을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원화채와 외화채를 각각 5 대 5 비중으로 발행하고 원화채의 경우 1년물과 3년물 그리고 외화채의 경우 3년물과 5년물을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발행한다는 가정하에 살펴보면 각 채권 만기 시까지 1.2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보증동의안은 총 11.2조 원 규모의 보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원의 산출근거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연구용역에 따라서 자금집행 전망을 8.2조 원에서부터 10.3조 원까지 하고 이 중 적극적인 수준인 9.3조 원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용역을 바탕으로 실수요에 기반하여 자금 수요를 전망할 때도 중간 수준이 9.7조 원입니다. 그래서 9.3조 원과 9.7조 원을 감안하고 또 유동성 대응자금을 감안할 때 10조 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에 지난 11월 6일에 회의장에서 소위원회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한도가 10조 원으로 24년 대비 5조 원 증액됐는데 24년 실적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적정성을 이미 검토했고요. 11쪽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위원장께서 25년도 보증한도가 10조로 5조 증액됐고 24년 실적은 한 2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당초 21대 국회 때 위원 추천 같은 게 다 마무리 돼서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운영되기를 희망했었는데요. 22대 들어와서 위원을 추천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9월 말부터 공급망기금사업 승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한 2조 4000억 정도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저희 용역 했던 결과를 보면,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한도 추산을 죽 했었는데 24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한 5조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사업 승인은 저희 정부 생각에는 예상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25년도에도 충분히 10조 원 정도 사업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집권에 공급망 분야에 대한 수요

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간단한 거, 9페이지 표에 보면 25년도가 필요규모가 제일 많네요. 그다음 해는 그 것보다 적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연도별로 승인을 하고 다시 상환이 되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소위원장 정일영 상환액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태년 위원 이게 필요할 때마다 조달하는 게 아니고 10조를 선 조달해 놓고 공급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이 승인을 받아 놔야지 사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김태년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제 질문은 수요처가 생겨 가지고 공급을 지원해야 될 때마다 10조 범위 내에서 조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10조를 선 조달해 놓고, 통장에 넣어 놓고 지급하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자가 더 맞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별 채권 수요를 감안해서……

○김태년 위원 그래요? 내가 이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박홍근 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 실제 관련된 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와 용역 두 가지를 다 병행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수요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요구가 더 커질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훨씬 더 그런 불안정성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가 커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커질 가능성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허가해 놓은 채권 범위에서 오버되면 다시 또 우리 기금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상 못 한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여기 지금 10조잖아, 한도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 ○출석 위원(4인)

김태년 박홍근 이인선 정일영

#### ○첨가 위원(1인)

이종욱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국고국장 황순관

경제공급망기획관 이형렬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